

네이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USPTO)에 등록됐거나 출원 중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 특허만 약 6000개에 이른다. 현재도 매월 200여개가 추가되고 있으며 대부분 중국과 미국이 출원하거나 등록하고 있다. 특허 기업이 아닌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등록을 주도하고 있다.

이들 특허에 영향을 줄 핵심 특허는 대학이나 공공기관이 대부분 선점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주요 특허를 보유한 대학과 기관들이 무료 공개 대열에 합류한다면 불필요한 특허 확보 경쟁이나 분쟁 없이 전세계에 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연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게 특허 공개 운동에 나선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맞서 메신저리보핵산(mRNA) 백신 특허를 일시 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 공개 움직임 역시 백신 특허 일시 면제 요구와 맥락이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허가 수세기 동안 발명자의 지적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는 기업이 경쟁자의 기술 개발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공공의 이익에 활용돼야 할 기술이 특허 전략으로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네덜란드 대학병원협회는 앞서 지난 2019년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특허와 라이선스’에 대한 10가지 원칙을 제안하고 학술 기관이 연구결과를 연구나 교육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 연구 결과가 사회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헤닝언대는 “중저소득 국가의 식량난을 개선하는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reborn@donga.com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 > 구독

구독자 470 응원수 127

안녕하세요. 동아사이언스 김민수 기자입니다.

[백신 업데이트] 중국의 또다른 백신 '클로버' 델타 변이 '대항마'되나
연일 확진자 쏟아져도 '위드 코로나' 계획대로 간다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IT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치료제의 모든 것
네이버에서 동아사이언스 구독하기

좋아요 8 흔쾌해요 0 슬퍼요 0 화나요 10 후속기사 원해요 0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7

인쇄 스크랩

동아사이언스 기사제공 동아사이언스 기사목록

이 기사의 댓글 정책은 동아사이언스가 결정합니다.

7개의 댓글

내 댓글

'고무대야 레드'...입 주 앞둔 아파트 나도 모르게 색 바뀌었 ...
머니투데이


'한 달 전기요금 6000원' 찍히자...이웃들 도 줄줄이 ...
한국일보

우한 실태 폭로 후 사라진 中 시민기자, 600일 만에 모 ...
아시아경제

네이버 메인에서 바로 보는 언론사 편집뉴스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 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현재 댓글 5 작성자 삭제 2 규정 미준수 0

 hotae0506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은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전한 토론문화와 양질의 댓글 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또는 특정 계층/민족, 종교 등을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0 / 300 등록


순공감순 최신순 공감비율순

클린넷이 악성댓글을 감지합니다. 설정

 ymch****
2021.09.24. 15:41


이걸 왜 무료로 풀어? 미쳤니? 상생 개드립에 속지 좀 마.

답글 작성 9 1

 dmsg****
2021.09.24. 16:55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특허 가진 사람이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특허 무료로 "해줘"임?

답글 작성 2 0

 eph6****
2021.09.24. 15:39

이런 기술을 그냥 공개하자고 바람 넣는건 뒤에서 비밀 실험 하는데 추적 받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의 계획이거나 아니면 진짜 엄청나게 순진무구한 생각 같은데. 테러집단이 핵무기야 원리는 이미 다 알아도 플루토늄이 없어서 못만들지만, 제 3세계 국가나 테러리스트도 저런 기술 알면 생화학 무기는 만들 수 있을걸요

답글 1 2 1

im_j****
2021.09.26. 15:18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답글 1

dxko****
2021.09.24. 12:38

작성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gji0****
2021.09.24. 12:24

그걸 허가하면 독재주의 국가들이 인간 개조하는데 쓸텐데 ^^

답글 1 5 6

 rjad****
2021.09.24. 11:36

딱 공산주의식 마인드네

답글 작성 2 3

[댓글 더보기](#)

IT/과학 속보 기사목록 전체보기

[부음]인호범(공주대 교수)씨 부친상
'빅테크 규제'에 카카오톡이 버를 바라보는 온도차
유전자 가위 특허를 무료로 허하라
1만년 전 사라진 매머드 복원에 부자들은 왜 투자했을까
게임업계 취업문 열린다...NC·넷마블 공채 실시

[언론사 목록](#) [분야별 목록](#)

[마이크로](#)

본 콘텐츠의 저작권은 제공처 또는 네이버에 있으며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 동아사이언스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

